

제153호(2017. 9. 18.)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목 차
contents

1. 추석시기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행태 1
2. 주요 농축산 품목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 10

감 수	황윤재 연구위원	061-820-2247	yjhwang@krei.re.kr
내 용 문 의	박미성 부연구위원	061-820-2362	mspark@krei.re.kr
자 료 문 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9.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 979-11-6149-049-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추석시기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행태〉

- 소비자 조사 결과, 추석 명절에 차례를 준비하는 소비자는 71.2%로 나타남. 그 가운데 추석 차례음식을 예법에 따라 차리는 소비자 비중은 35.1%로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간편하게 차린다는 소비자 비중은 증가함.
- 소비자의 추석 대비 농축산물 주 구입 시기는 추석 2~4일 전임. 예상 지출비용은 30만 원대(37.2%)가 가장 많으며, 20만 원대(34.4%), 40만 원대(10.6%) 순서임.
 - 곡물류, 육류, 가공식품류의 추석 명절음식 구입의향 장소는 대형마트 비중이 가장 높고, 과일류와 채소류는 시장 비중이 가장 높음.
- 추석시기 과일류, 육류, 곡물류, 채소류 구입의향 물량은 작년과 비슷함.
 - 추석시기 햅쌀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68.5%로 차례를 지내는 소비자보다 적지만, 작년 추석시기 햅쌀 구입의향(59.8%)보다 높음.
 - 추석 명절용 김치를 담글 소비자는 39.9%로 작년보다 감소함.
 - 제수용 및 가정 내 소비용 육류 구입 시 국내산 원산지를 고려하며, 쇠고기 구입의향은 한우, 국내산 육우, 호주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순서임.
 - 명절용 과일 구입의향은 물량기준으로 사과, 배, 포도, 단감 순으로 많고, 차례상에 수입과일을 올린다는 소비자는 20%임.
- 올해 추석에 선물을 구입하겠다는 소비자는 작년 대비 5.7%p 증가한 79.7%로 재작년 수준임. 추석 선물 예상 비용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되, 저렴한 선물로 하겠다는 의향이 높음.
 - 추석 선물용으로는 과일을 가장 선호하며, 사과, 배, 사과배혼합, 포도, 복숭아 순서임.
 - 선물용 육류로 선호하는 품목은 한우고기, 한우갈비, 수입육 갈비 순서임.

〈주요 농축산 품목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 (과일)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과일 가격 출하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사과 가격은 작년보다 11% 낮은 상품 5kg 상자에 2만 4천~2만 7천 원 전망
 - 추석 배 가격은 작년보다 10% 낮은 상품 7.5kg 상자에 2만 ~ 2만 3천 원 전망
 - 추석 단감 가격은 작년보다 41%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3천 ~ 2만 5천 원 전망

-
- **(축산물) 추석맞이 도축 마릿수가 증가한 돼지고기를 제외한 축산물 공급은 작년보다 감소 전망**
 - 추석 성수기 계란 산지가격은 공급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살충제 논란 이후 소비 감소로 전년과 비슷한 1,250~1,450원(특란 10개) 전망
 - 추석 성수기 한우 도축 마릿수는 감소하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매가격은 1등급 기준 작년보다 낮은 kg당 18,000~19,000원 전망
 - 추석 돼지 탕박 지육가격은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작년보다 높은 kg당 5,000~5,300원으로 전망
 - **(햄쌀) 조생종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생종 출하 등의 영향으로 햄쌀 공급 측면에서 차질 없을 전망**
 - 추석 햄쌀 산지유통업체 판매가격은 조생종 재배면적이 줄고 작황도 저조하나, 중생종 출하 등의 영향으로 20kg당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3만 6천 원 내외로 전망
 - **(채소) 고랭지 배추무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평년보다 감소하나, 작년보다 많을 전망**
 - 추석 성수기 배추무 가격은 평년보다 높으나,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임산물) 밤 소비지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건대추 소비지가격은 강보합세 전망**
 - 추석 성수기 밤 소비지가격은 8~9월 가격과 금년 생산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상품 기준 작년 동기보다 1~8% 낮은 kg당 7,000~7,500원 전망
 - 건대추 소비지가격은 최근 3년 추석기간동안의 가격 상승폭과 성수기 공급량 등을 고려할 때 작년 성수기보다 다소 높은 kg당 1만 8,900원~1만 9,000원으로 예상

01 | 추석시기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행태

**추석 명절에 차례를 준비하는 소비자는 71.2%,
예법보다는 간편하게 차례상을 차린다는 소비자 비중 증가**

- 소비자의 추석 명절음식 구입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가구(주부)패널 599명을 대상으로 9월 1~2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00\%$
- 설문응답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비중이 높았음.
응답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은 415만 원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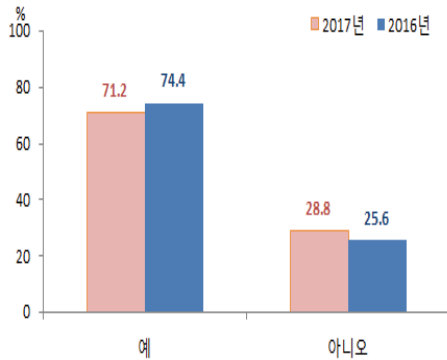
〈표 1〉 설문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 수(명)	비율(%)
전체		599	100.0
권역별	수도권	376	62.8
	충청권	47	7.8
	호남권	42	7.0
	영남권	122	20.4
	강원권	12	2.0
연령	20대	4	0.7
	30대	47	7.8
	40대	223	37.2
	50대	242	40.4
	60대 이상	83	13.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35	5.8
	200만 원 ~ 300만 원 미만	92	15.4
	300만 원 ~ 400만 원 미만	140	23.4
	400만 원 ~ 500만 원 미만	169	28.2
	500만 원 ~ 600만 원 미만	104	17.4
	600만 원 이상	59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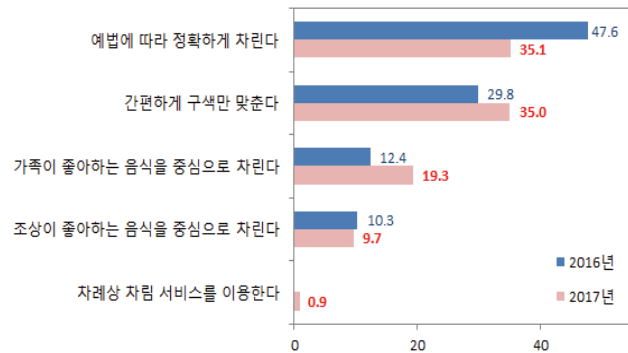
1.1. 제수용 및 가정 내 소비용 구입행태

-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소비자는 71.2%이며, 그 가운데 예법에 따라 차례상을 차리는 소비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간편하게 차린다는 소비자 비중은 증가
 - 소비자 조사결과, 추석 차례상을 차린다는 소비자(본인 및 친인척 가정 포함)는 전체의 71.2%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감소함. 그 가운데 추석 차례음식을 예법에 따라 차리는 소비자는 35.1%로 전년 대비 12.5%p 감소함. 반면 간편하게 구색만 맞추거나(29.8%→35.0%)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차린다(12.4%→19.3%)는 소비자의 비중은 증가하였음.

〈그림 1〉 추석 차례상 차림 여부



〈그림 2〉 금년 추석 차례음식 준비 방식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 소비자의 추석 명절음식 주 구입 시기는 추석 2~4일 전이며, 예상 지출비용이 30만 원대라는 소비자가 37.2%로 가장 많아

- 소비자는 추석 제수용 및 가정 내 소비용 명절음식을 추석 7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주 구입 시기는 추석 2~4일 전임.
- 음식 부류별 구입 시기를 살펴보면, 곡물류는 추석 2~3주 전, 육류, 과일류, 채소류, 가공식품류는 추석 2~4일 전에 구입한다는 소비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 소비자의 추석 음식 부류별 구입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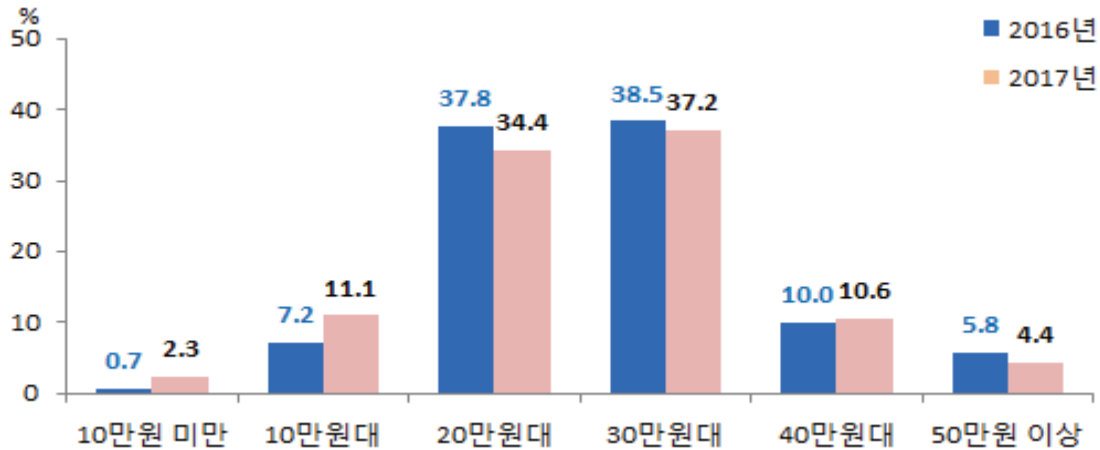
단위: %

	주 구입시기	음식 부류별				
		곡물류	육류	과일류	채소류	가공식품류
추석 1일 전	12.0	5.9	24.8	14.5	29.4	6.4
추석 2~4일 전	52.6	15.9	55.9	59.8	60.0	33.7
추석 5~7일 전	25.2	22.3	14.7	21.4	8.4	31.5
추석 8~14일 전	7.5	17.1	3.9	3.6	1.1	17.2
추석 2주~3주 전	2.4	25.8	0.3	0.4	0.6	10.1
기타	0.3	13.0	0.3	0.2	0.4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 소비자의 추석 명절음식 구입 예상 지출비용은 30만 원대가 37.2%로 가장 많고, 20만 원대(34.4%), 40만 원대(10.6%) 순서로 나타남.
- 소비자의 67.9%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출비용을 계획하고 있음.
- 예상 지출비용을 줄이겠다는 소비자 비중은 17.5%로 늘리겠다는 소비자 비중(14.6%)보다 많았음. 예상 지출비용을 줄이는 이유로는 소득이 감소하고, 음식량이나 종류를 줄일 계획이기 때문임.

〈그림 3〉 추석 명절음식 구입 예상 지출비용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 곡물류, 육류, 가공식품류의 추석 명절음식 구입의향 장소는 대형마트 비중이 가장 높고, 과일류와 채소류는 시장 비중이 가장 높음.

○ 추석 음식 부류별 소비자의 추석 명절음식 구입의향 장소는 차이가 있음. 곡물류, 육류, 과일류의 구입의향 장소는 대형마트가 46.1~68.8%로 높으며, 그중 가공식품류의 대형마트 구입의향 비중이 68.8%로 가장 높음. 반면, 과일과 채소류의 구입의향 장소는 재래시장 및 도매시장 비중이 44.8~53%로 높음.

〈표 3〉 추석 음식부류별 구입의향 장소

단위: %

	음식 부류별				
	곡물류	육류	과일류	채소류	가공식품류
시장	15.6	25.2	44.8	53.0	7.1
대형마트	47.4	46.1	30.8	24.3	68.8
인근 상가, 슈퍼	6.3	11.6	9.2	11.7	7.5
농협	8.5	11.6	8.6	8.7	8.3
산지 직거래	8.8	1.7	2.1	0.4	0.2
온라인쇼핑몰	6.8	1.0	1.7	0.4	6.0
백화점	1.2	2.4	1.5	0.6	1.1
기타	5.6	0.5	1.5	0.9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추석 농축산물 구입의향 물량은 작년과 비슷, 햅쌀을 구입할 소비자는 68.5%

□ 추석시기 과일류, 육류, 채소류, 곡물류 구입의향 물량은 작년과 비슷

- 추석 차례 및 가정 내 소비를 위해 곡물, 육류, 과일, 채소, 가공식품 구입을 작년 추석과 비슷하게 하겠다는 소비자 비중이 59.9~7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육류와 과일류 3.1점, 곡물류와 채소류 3.0점, 가공식품류 2.9점임.
- 한편, 추석 물가가 저렴하면 구입량을 늘리겠다는 소비자 의견이 있었음.

〈표 4〉 추석 음식 부류별 작년 대비 구입의향 물량

구분	①+② 증가		③ 비슷	④+⑤ 감소		평균(점)		
	①많이 증가 (20% 이상)	②약간 증가 (10~20%)		④약간 감소 (10~20%)	⑤많이 감소 (20% 이상)			
곡물류	2.0	10.0	12.1	78.1	8.5	1.4	9.9	3.0
육류	3.2	17.9	21.2	63.1	14.4	1.4	15.7	3.1
과일류	3.9	19.9	23.8	60.9	13.3	2.0	15.3	3.1
채소류	3.9	14.8	18.7	59.9	19.7	1.7	21.4	3.0
가공식품류	2.9	10.6	13.5	64.1	18.5	3.9	22.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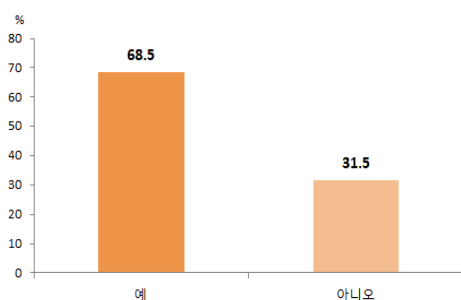
주: 평균(점)은 '많이 감소'를 1점, '약간 감소'를 2점, '비슷'을 3점, '약간 증가'를 4점, '많이 증가'를 5점으로 하여 계산한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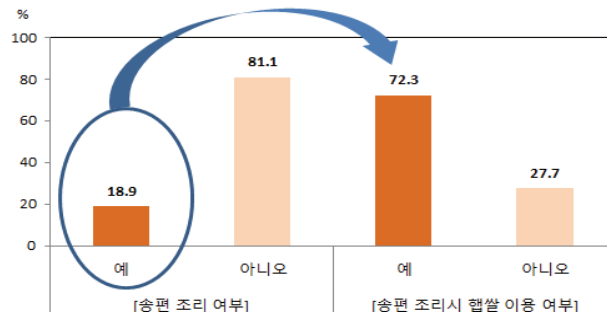
□ 추석시기 햅쌀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68.5%로 전년보다 증가

- 추석 차례상 준비 및 가정 내 소비를 위해 햅쌀을 구입하겠다는 소비자 비중은 68.5%로 차례를 지내는 소비자 비중(71.2%)보다 낮음. 하지만, 작년 추석시기 햅쌀 구입의향(59.8%)보다 높음.
- 올 추석에 송편을 직접 만들겠다는 소비자는 18.9%임. 올 추석에 송편을 직접 만들겠다는 소비자 중 72.3%(전체 소비자의 18.4%)는 햅쌀을 이용하여 송편을 만들 계획임.

〈그림 4〉 추석시기 햅쌀 구입 의향



〈그림 5〉 송편 조리 및 햅쌀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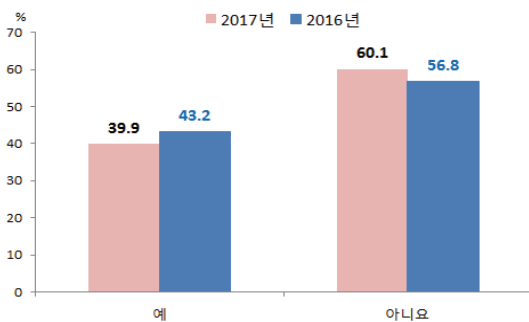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추석 명절용 육류 구입 시 원산지를 고려하며, 쇠고기 구입의향은 한우가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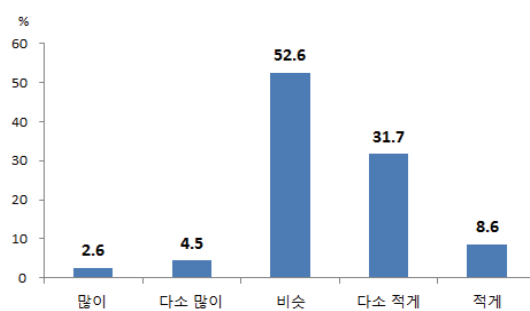
□ 추석 명절용 김치를 담글 소비자는 39.9%로 작년보다 감소

- 소비자 중 39.9%는 추석 명절용 김치를 담글 계획이 있음. 이는 작년보다 3.3%p 감소한 수준임.
- 추석시기 김치를 담그는 양은 대체로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지만, 작년 대비 줄이겠다는 소비자(40.3%)가 늘리겠다는 소비자(7.1%)보다 많았음.
- 올해 추석시기 김치 양을 줄이려는 이유는 배추가격이 비싸서(65.3%), 소비량이 줄어서(15.3%), 김치가 남아서(11.4%) 등이 있었음.

〈그림 6〉 추석시기 김치를 담글 의향



〈그림 7〉 작년 대비 추석시기 담글 김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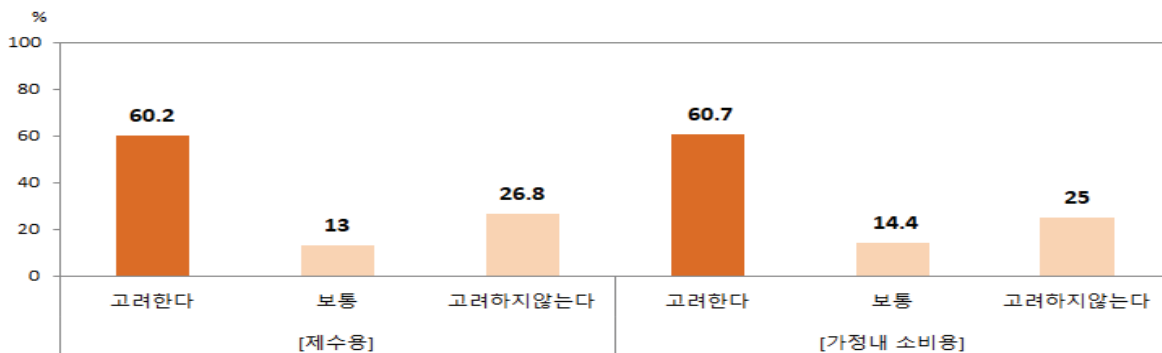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 추석시기 제수용 및 가정 내 소비용 육류 구입 시 국내산 원산지를 고려하는 소비자 비중 60%

- 추석 명절음식 준비를 위해 육류 구입 시 소비자 대부분은 원산지(국내산)를 고려함.
- 추석 육류 구입 시 원산지를 고려한다는 소비자 비중은 제수용이 60.2%, 가정 내 소비용이 60.7%임.

〈그림 8〉 추석시기 구입할 육류 원산지 고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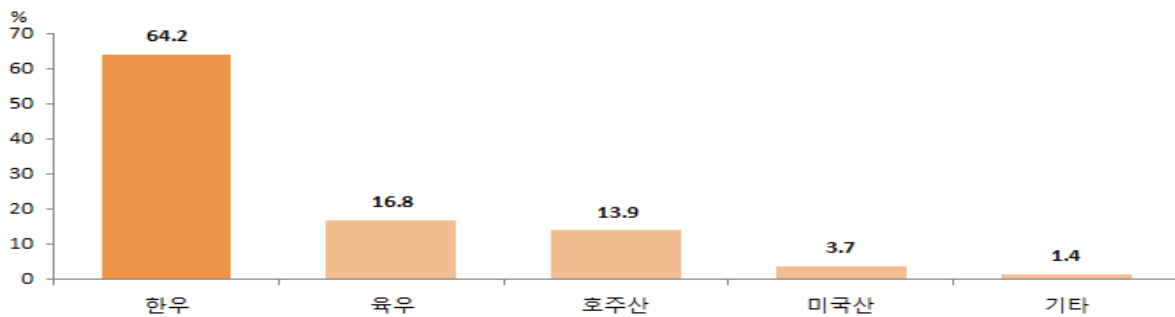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추석 구입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순이며,
차례상에 수입과일을 올린다는 응답 비중은 20%**

□ 추석시기 쇠고기 구입의향은 한우, 국내산 육우, 호주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순서임.

- 추석 명절음식 준비를 위해 구입할 쇠고기의 선호도는 한우(64.2%), 국내산 육우(16.8%), 호주산 쇠고기(13.9%), 미국산 쇠고기(3.7%) 순서임.

〈그림 9〉 추석시기 원산지별 쇠고기 구입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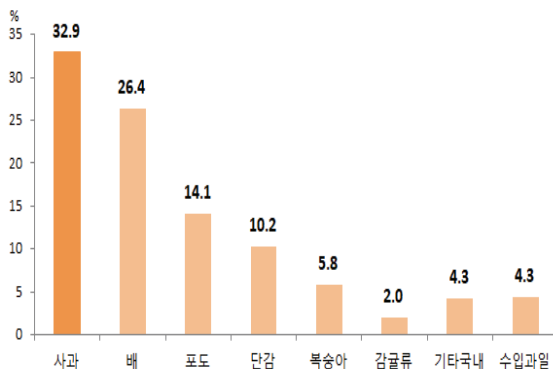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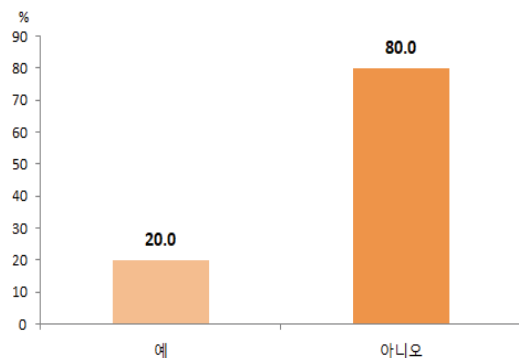
□ 추석시기 과일 구입의향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순서이며, 차례상에 수입과일을 올린다는 소비자 비중은 20%임.

- 추석 명절에 구입할 과일은 물량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류 등의 순서임.
- 한편, 바나나, 멜론,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과일을 구입할 소비자는 4.3%임.
- 차례상에 수입과일을 올린다는 소비자는 20%임.

〈그림 10〉 과일 구입계획(물량기준)



〈그림 11〉 차례상 수입과일 이용 여부



주: 추석시기 구입할 과일을 물량기준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응답하게 하여, 각각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가중 평균하였음.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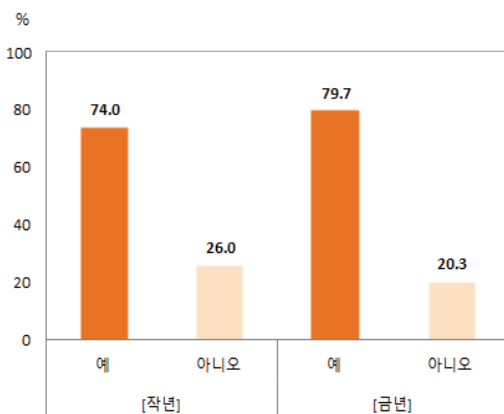
1.2. 추석 선물용 구입행태

올해 추석 선물을 구입하겠다는 소비자는 79.7%로 재작년 수준,
선물용으로 과일을 가장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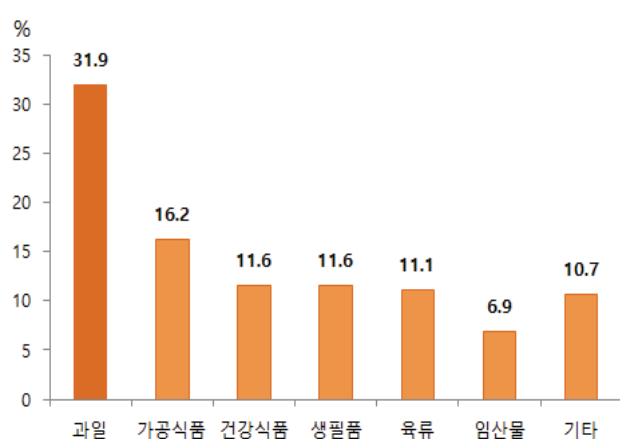
□ 추석에 선물을 구입하겠다는 소비자 비중은 79.7%로 작년 대비 5.7%p 증가하였으며, 선물용으로는 과일 구입의향이 가장 높아

- 작년 추석에 선물을 구입하였다는 소비자 비중은 74%인 반면, 금년 추석에 선물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79.7%로 작년 대비 5.7%p 증가함.
 - 추석 선물 예상 비용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저렴한 선물로 하겠다는 의향이 높음.
- 추석 선물용으로 구입의향이 있는 품목으로는 과일(31.9%)이 가장 높으며, 가공식품(참치, 커피, 차 등)이 16.2%, 건강식품(홍삼, 비타민, 엑기스 등)이 11.6%, 생필품(삼푸, 치약, 화장품 등)이 11.6%, 축산물이 11.1%, 임산물(꽃감, 버섯, 밤, 벌꿀 등)이 6.9%, 인삼류·수산물·주류 등 기타가 10.7%로 나타남.

〈그림 12〉 추석 선물 구입의향



〈그림 13〉 추석 선물용 구입의향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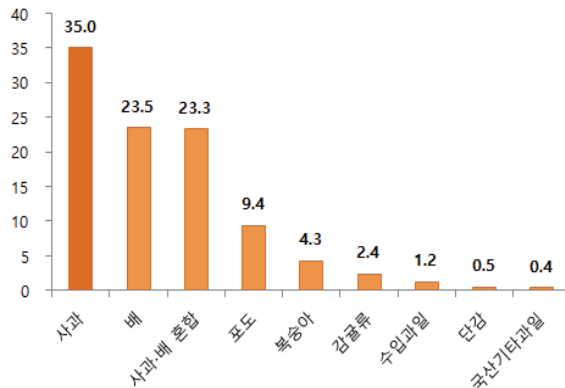
주: 추석 선물용 구입의향 품목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응답하게 하여, 각각 3점, 2점, 1점으로 가중 평균하였음.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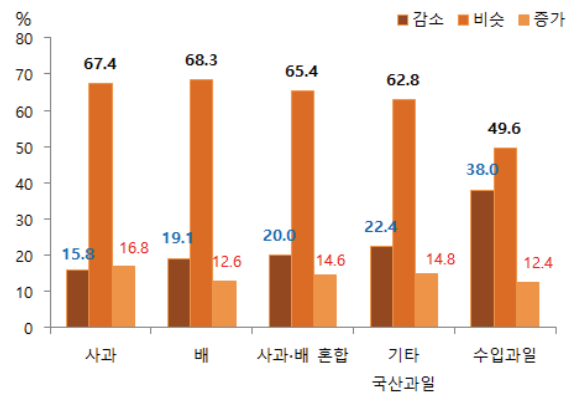
□ 추석 선물용 과일로 선호하는 품목은 사과, 배, 사과배혼합, 포도, 복숭아 순서임.

- 추석 선물용으로 과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사과(35.0%), 배(23.5%), 사과배혼합(23.3%), 포도(9.4%), 복숭아(4.3%) 순서로 구입의향이 있음.
 - 올해 추석 선물용 국산 과일은 작년 추석과 비슷한 물량을 구입하겠다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4〉 추석 선물용 과일 구입의향



〈그림 15〉 추석 선물용 과일 구입물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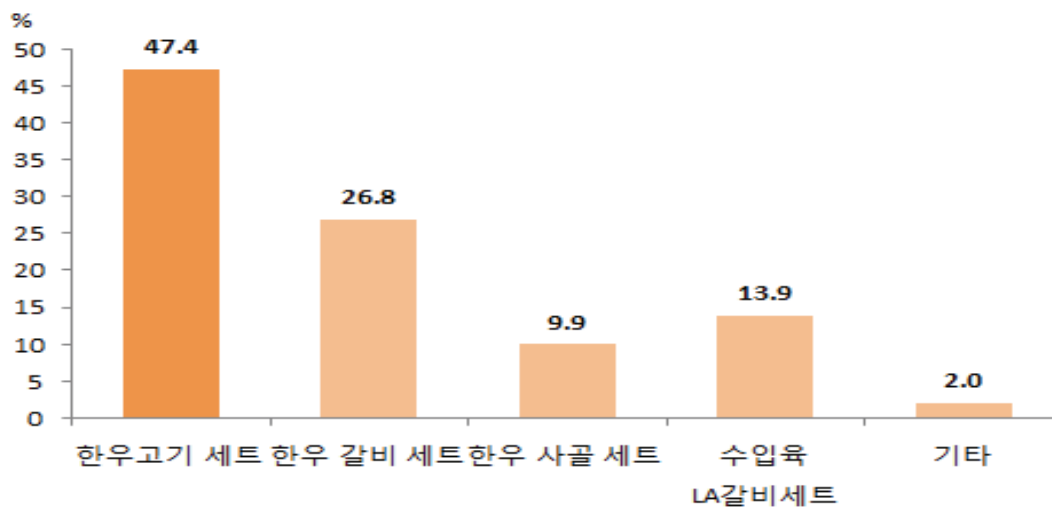
주: 추석 선물용 구입의향 품목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응답하게 하여, 각각 3점, 2점, 1점으로 가중 평균하였음.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 추석 선물용 육류로 선호하는 품목은 한우고기, 한우갈비, 수입육 갈비 순서임.

- 추석 선물용 육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한우고기(47.4%), 한우갈비(26.8%), 수입육 갈비(13.9%), 한우사골(9.9%) 순서로 구입의향이 있음.

〈그림 16〉 추석 선물용 육류 구입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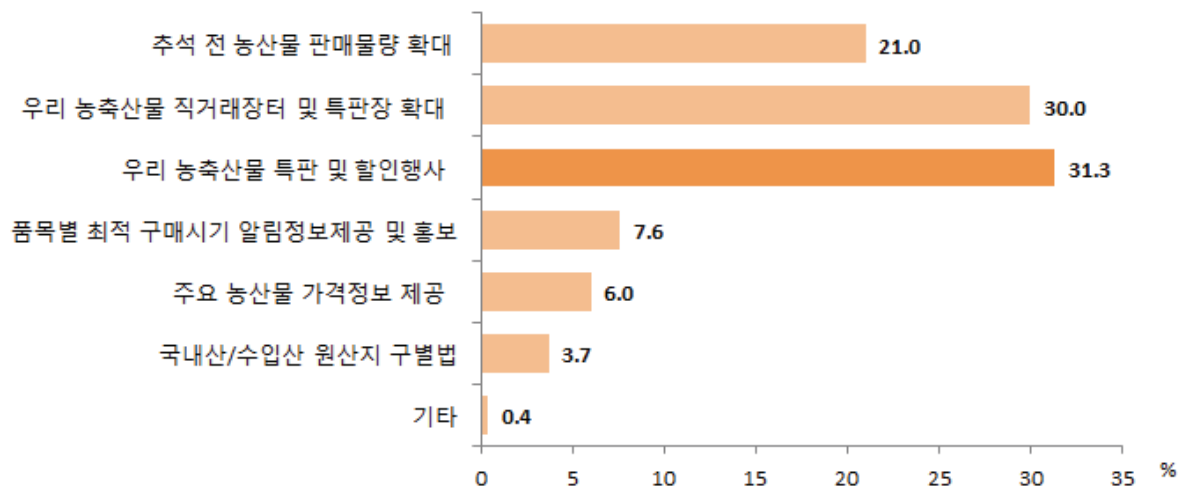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소비자가 본 추석 명절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방안

□ 추석 명절에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농축산물 할인행사, 직거래장터 및 특판장 확대 등이 필요

○ 소비자들은 추석 명절에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 농축산물 할인행사(31.3%), 우리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및 특판장 확대(30.0%), 추석 전 농축산물 판매 물량 증대(21.0%), 품목별 최적 구매시기 알림정보 제공 및 홍보(7.6%),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제공(6.0%)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그림 17〉 소비자가 본 추석 명절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방안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치.

02 | 주요 농축산 품목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추석 사과 출하량은 전년보다 3% 많을 전망

2.1. 과일

가. 사과

□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 전년 대비 3% 증가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4% 적으나, 평년보다는 8% 많은 55만 4천 톤으로 전망됨.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우박 피해 및 탄저병 발생으로 단수가 감소함.
- 추석시기에 주로 출하되는 홍로는 7~8월 잦은 강우로 충북 및 경북 지역에 탄저병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량이 전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9.20.~10.3.) 사과 출하량은 늦은 추석으로 작년 성수기보다 3%, 평년보다는 36% 증가한 7만 5천 톤 내외로 전망됨.
- 올해 추석이 늦어 홍로 외에도 양광, 후지조숙계, 감홍, 시나노스위트 등 다양한 품종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전년 성수기에 해당하는 9.1.~9.14. 동안의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

〈표 5〉 2016년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사과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분		9월		10월 이후
			추석 성수기	
2017년산		94.9	75.1	405.1
2016년산		93.1	72.8	422.4
평년		76.8	55.2	385.2
증감률	전년 대비	1.9	3.2	-4.1
	평년 대비	23.7	36.0	5.2

주: 평년은 2012~2016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추석 성수기 사과 가격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 홍로 도매가격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 홍로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 성수기(2만 9천 원)보다 11% 낮고 평년보다는 15% 낮은 상품 5kg 상자에 2만 4천~2만 7천 원으로 전망됨.

〈표 6〉 추석 성수기 사과(홍로) 도매가격 추이

단위: 원(상품)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평년
5kg	28,770	29,693	28,215	41,296	31,182	29,882

주: 평년은 2012~16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나. 배

□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 작년보다 23% 증가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1% 적은 23만 5천 톤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으나, 생육이 양호하여 단수는 2% 증가하기 때문임.
 - 개화기 및 세포분열기에 기상이 양호하여 착과수 및 봉지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9.20.~10.3.) 배 출하량은 늦은 추석으로 작년 및 평년 성수기보다 23% 증가한 7만 4천 톤 내외로 전망됨.
 - 올해는 늦은 추석으로 지베렐린 처리가 감소(전년 대비 -20%)하였고, 과 비대도 원활하여 완숙과 및 대과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7〉 2017년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배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분	9월		10월 이후
		추석 성수기	
2017년산	78.9	73.7	141.5
2016년산	64.6	59.9	159.8
평년	65.7	60.2	181.8
증감률	전년 대비	22.2	23.0
	평년 대비	20.0	22.5

주: 평년은 2012~2016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추석 성수기 배, 단감 가격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 신고 도매가격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듯

- 추석 성수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 성수기(2만 4천원)보다 10% 낮고, 평년보다는 18% 낮은 상품 7.5kg 상자에 2만 ~ 2만 3천 원으로 전망됨.

〈표 8〉 추석 성수기 배(신고) 도매가격 추이

단위: 원(상품)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평년
7.5kg	23,784	24,407	30,301	30,783	35,718	26,325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다. 단감

□ 추석 성수기 단감 출하량 작년보다 9% 증가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14만 2천 톤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 감소하였으나, 단수가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7월 가뭄으로 인해 과 크기가 전년보다 작았으나, 8월 잦은 비로 과 비대가 회복되어 단수는 전년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추석 성수기(추석 전 1주간, 9.27.~10.3.) 단감 출하량은 늦은 추석으로 작년 성수기보다 9% 많으나, 평년보다는 2% 적은 3천 톤 내외로 전망됨.
 - 올해는 늦은 추석으로 서촌, 태추, 상서 등 다양한 품종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임.

〈표 9〉 2017년 추석 성수기(추석 전 1주간) 단감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분	9월		10월 이후
		추석 성수기	
2017년산	5.4	2.6	136.4
2016년산	5.4	2.4	130.2
평년	5.5	2.7	163.8
증감률	전년 대비	0.5	8.7
	평년 대비	-2.9	-1.8

주: 평년은 2012~2016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추석 성수기 계란 산지가격, 소비자 불안 심리 회복 정도가 관건

□ 추석 성수기 단감 도매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1주간) 서촌조생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및 평년 성수기(4만원)보다 41% 낮고, 평년보다 37%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3천 ~ 2만 5천 원으로 전망됨.

〈표 10〉 추석 성수기 단감(서촌조생) 도매가격 추이

단위: 원(상품)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평년
10kg	40,446	30,471	43,147	61,672	29,348	38,021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기준),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2.2. 축산물

가. 계란

□ 계란 9월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9월 산란용 닭 마릿수는 5,261만 마리로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마릿수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추석 성수기 계란 산지가격 소비자 불안 심리 회복 정도가 관건

- 소비자 조사 결과(9월 1~2일) 계란 소비는 살충제 논란 전 대비 30% 감소하였고, 추석시기에는 23.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계란 공급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살충제 논란 이후 소비 감소로 추석 성수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수준인 1,250~1,450원(특란 10개)로 전망됨.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 회복 정도에 따라 가격 등락 폭 결정

〈표 11〉 추석시기(9월) 계란 산지가격 전망

단위: 원/특란 10개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평년
산지가격	1,250~1,450	1,301	1,281	1,393	1,472	1,185	1,325

자료: 농협중앙회;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추석 성수기 한우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

나. 쇠고기

□ 추석 전 한우 도축 마릿수 작년보다 감소 전망

- 출하 대기물량 감소로 추석 전 한우 도축은 작년(10만 7천 마리)보다 2.5%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산 쇠고기 공급은 평년(15만 1천 마리)에 비해서도 24% 적은 수준
- 쇠고기 수입량 증가세 둔화로 수입량은 작년보다 약 3% 내외 감소 전망

〈표 12〉 작년 대비 추석 전 한우 도축 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구분	2017년	2016년	평년	작년 대비 증감률(%)
도축 마릿수	113 ~ 114	116	151	-2.5 ~ -2.0

자료: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작년보다 하락 전망

-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9.20.~10.3.)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19,647원)보다 하락한 kg당 18,000~19,000원으로 전망됨.

〈표 13〉 한우 1등급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도매가격 전망

구분	2017년	2016년	평년	작년 대비 증감률(%)
도매가격(원/kg)	18,000 ~ 19,000	19,647	16,380	-8.4 ~ -3.3

자료: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다. 돼지고기

□ 돼지 9월 도축 마릿수 작년보다 2% 증가 전망

- 추석시기(9월) 도축 마릿수는 모돈 수 증가에 따른 사육 마릿수 확대에 따라 작년보다 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릿수가 증가한 데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생산 지연이 해소되면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추석 성수기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

〈표 14〉 추석시기(9월) 돼지 도축 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구분	2017년	2016년	평년	작년 대비 증감률(%)
도축 마릿수	1,341	1,309	1,236	2.4

주: 평년은 2012~2016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 추석시기 돼지고기 도매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도축 마릿수가 증가하지만 육가공업체 작업량 증가,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추석시기(9월) 돼지 탕박 지육가격은 작년(4,970원)보다 높은 kg당 5,000~5,300원으로 전망됨.

〈표 15〉 추석시기(9월) 돼지고기 도매가격 전망

단위: 원/통백kg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평년
도매가격	5,000~5,300	4,970	4,840	4,939	3,929	3,645	4,569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2.3. 햅쌀

□ 2017년산 조생종 벼 재배면적 감소, 작황도 전년보다 좋지 못해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2017년 5월 초), 금년 조생종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이는 지난 해(2016년산) 조생종 벼 가격이 낮았고, 금년 추석(10.4.)도 예년보다 늦어 추석 특수를 기대하는 농가가 줄었기 때문
- 수확기 잦은 비 등으로 2017년산 조생종 벼 생육은 전년보다 나쁜 상황
 - 산지유통업체 조사결과, 조생종 작황이 전년보다 나쁘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음.
 - 농촌진흥청 벼 생육조사 결과(9.1. 기준), 금년 조생종 m²당 벼알수는 3만 3,941개로 전년 대비 1.1%(383개) 적은 상황

중생종 출하로 추석시기 햅쌀 공급 차질 없을 듯

〈표 16〉 조생종 벼 생육 상황(9월 상순 기준)

단위: %

구 분	아주 좋다	좋다	비슷하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조생종 작황	2.3	22.3	32.4	37.0	6.0

자료: 농업관측본부 표본 산지유통업체 315개 업체 조사결과

□ 중생종 출하로 추석햅쌀 공급 부족하지 않아

- 산지유통업체 조사결과(9월 상순 기준), 2017년산 조생종 벼 가격은 40kg 기준 4만 4,533원으로 전년 대비 5.7% 상승
 - 이는 조생종 공급량이 감소하였고, 구곡재고가 부족한 일부업체들이 햅곡 구매에 적극적이기 때문
- 다만, 9월 하순 중생종의 본격 출하로 추석기간 햅쌀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추석용 햅쌀 가격은 작년 추석시기와 비슷한 3만 6천 원/20kg 내외 예상

2.4. 채소

가. 배추

□ 추석 성수기인 9월 고랭지배추 주산지 작황은 평년보다 부진하나, 작년보다 양호

- 9월 중·하순 출하될 고랭지배추 작황은 7월 고온, 폭우피해와 8월 잦은 비의 영향에 따른 피해로 평년보다 부진하나, 작년보다 양호
 - 주산지인 강릉(안반덕, 대기리), 평창(대관령), 정선(남면)은 상대적으로 작황이 양호하나, 태백(귀네미), 삼척(하장) 등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추석 성수기인 9월 중·하순 출하량 평년보다 감소하나, 작년보다 증가 전망

- 추석 성수기인 9월 중·하순 고랭지배추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7%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
 - 출하면적: 추석 수요 대비 정식면적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5% 증가
 - 출하단수: 최근 기상 호조로 상순 출하물량보다 작황 양호하여 작년 동기 대비 3% 증가

추석 성수기 무 가격은 평년보다 높으나, 작년보다 낮을 전망

〈표 17〉 9월 중·하순 출하량 작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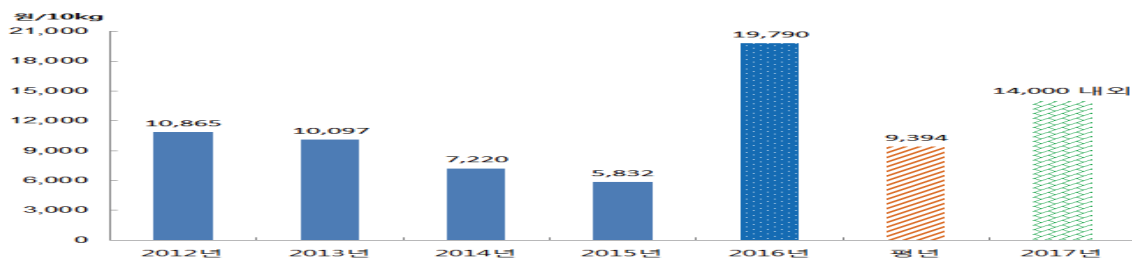
구 분	출하면적	단수	출하량
작년 대비	4.7	2.5	7.2
평년 대비	-9.7	-5.6	-15.3

자료: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추석 성수기 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9.20.~10.3.)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추석 대비 정식면적 증가로 가격이 높았던 작년 동기(19,790원/10kg)보다 낮으나, 평년(9,390원)보다는 높은 1만 4천 원/10kg 내외로 전망됨.

〈그림 18〉 추석 성수기 배추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이며, 추석 전 2주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나. 무

□ 추석 성수기 출하될 고랭지무 주산지 작황 평년보다 부진하나, 작년보다 양호

- 금년 추석 성수기에 출하될 고랭지무 작황은 생육기(7~8월) 잦은 비로 평년보다 부진하나, 작황이 크게 나빴던 작년보다는 양호
- 추석 성수기(9월 하순) 주 출하지역은 강원 평창강릉·정선·홍천지역 등

□ 추석 성수기인 9월 중·하순 출하량 평년보다 감소하나, 작년보다 증가 전망

- 추석 성수기인 9월 중·하순 출하량은 출하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저조하여 평년 출하량보다는 8% 감소하나, 작황이 나빴던 작년 동기보다는 8% 증가 전망
- 출하면적: 재배면적 증가로 평년과 작년보다 각각 2%, 7% 증가
- 출하단수: 평년보다는 10% 감소하나, 작년보다는 1% 증가

추석 성수기 밤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

〈표 18〉 9월 중 · 하순 출하량 작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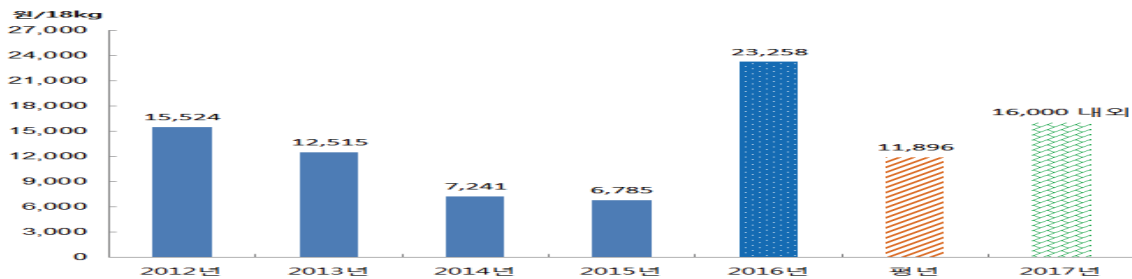
구 분	출하면적	단수	출하량
작년 대비	6.8	1.3	8.2
평년 대비	1.8	-9.7	-7.8

자료: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추석 성수기 도매가격 작년보다 낮으나, 평년보다는 높을 전망

- 금년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9.20.~10.3.)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23,260원)보다 낮으나, 평년(11,900원)보다 높은 상품 18kg당 1만 6천 원 내외로 전망됨.

〈그림 19〉 추석 성수기 무 도매가격 추이 및 전망



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이며, 추석 전 2주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2.5. 임산물

가. 밤

□ 올해 밤 생산량 작년보다 다소 증가할 듯

- 올해 밤 생산량은 작년보다 약 1% 증가한 5만 4,2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밤 주산지 초기 생육상황이 이상기상 등으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햇밤이 평년보다 다소 늦은 9월 초순부터 생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생종 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태풍, 가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향후 중·만생종의 생산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9〉 2017년 밤 수급 전망

단위: 톤

구 분	공 급			수 요	
	계	생산	수입	내수	수출
2017년	61,441	54,200	7,251	51,328	10,113
2016년	60,995	53,600	7,395	52,999	7,996
평년	66,386	59,134	7,251	56,272	10,113

주: 2016년 생산량은 잠정치이며, 2017년 수출입량은 평년수준으로 가정.

자료: 2016년 임산물생산통계(잠정), 2016년 임산물수출입통계; 2017년은 산림정책연구센터 전망치.

□ 추석 성수기 밤 소비지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올해 추석 성수기 밤 상품 소비지가격은 최근 3년간 추석기간 소비지가격의 상승폭과 금년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작년 동기보다 약 1~8% 낮은 kg당 7,000~7,500원으로 전망됨.

〈표 20〉 추석 성수기 밤 소비지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kg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평균
소비지가격	7,000~7,500	7,644	7,013	7,268	7,308

자료: 산림조합중앙회(상품 소비지 평균가격 기준); 2017년은 산림정책연구센터 전망치.

나. 대추

□ 올해 대추 생산량 작년보다 2% 감소할 전망이나 추석 성수품 공급은 충분할 듯

- 올해 대추 생산량은 평년과 작년보다 각각 11%, 2% 감소한 1만 5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대추 수출입량을 평년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내수물량은 1만 600톤 내외일 것으로 예상됨.
 - 대추 생육기간에 가뭄과 잦은 비로 낙과량이 작년보다 많았으나, 9월에는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과실 비대 등 작황이 좋아 생산량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올해는 추석 시기가 작년보다 19일 늦은 관계로 제수용 생대추 출하가 가능하여 추석 성수품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표 21〉 2017년 대추 수급 전망

단위: 톤

	공 급			수 요	
	계	생산	수입	내수	수출
2017년	10,623	10,550	73	10,613	10
2016년	10,953	10,784	169	10,933	20
평년	11,902	11,829	73	11,892	10

주: 2017년 수출입량은 평년수준으로 가정.

자료: 2016년 임산물생산통계(잠정치), 관세청(수출입통계); 2017년은 산림정책연구센터 전망치.

추석 성수기 건대추 소비지가격 작년대비 강보합세 전망

□ 추석 성수기 건대추 소비지가격 작년대비 강보합세 전망

- 올해 추석 성수기 건대추 가격은 최근 3년간 추석기간 소비지가격의 상승폭과 올해 산지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작년에 비해 강보합세를 보여 kg당 1만 8,900원~19,000원 내외로 전망됨.

〈표 22〉 추석 성수기 건대추 소비지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 원/kg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평균
소비지가격	18,900~19,000	18,866	16,830	18,350	18,015

자료: 산림조합중앙회(상품 소비지 평균가격 기준); 2017년은 산림정책연구센터 전망치.